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절불상의 모든 것
적임 상담에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2-1522 / 구독신청·737-0090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2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9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기복신앙

기복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은함을 원한다. 무병장수를 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크게 탓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가피와 외호를 바라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의 궁극은 깨달음에 있다. 선의 등장은 가피와 외호가 만연하는 풍토에 대한 질타에 다름아니었다.

복을 기원함을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기원의 내용이 재화의 풍요만을 바라거나, 의타적일 때는 곤란하다. 소수의 사람에게 재화가 편중되면, 편중된만큼 재화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나눔이 없는 기원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나눔이 없는 기원은 아상(我相)을 버리지 못한. 신앙의 껍데기로 가린 이기주의일 뿐이다.

아상 못버린 이기주의 불교의 궁극은 깨달음

복전(福田)이라는 말이 있다. 〈우바새계경〉에 의하면 복전은 세 가지가 있다. 경전(敬田)은 불·법·승 3보에 대한 봉사, 보은전(報恩田)은 부모에 대한 봉사, 빈궁전(貧窮田)은 빈곤한 사람과 병든 사람에 대한 봉사를 가리킨다. 고려시대 사찰에서 운영했던 대비원(大悲院) 같은 경우가 빈궁전의 좋은 보기이다.

불교의 기복은 이 세 가지 복전을 일구는 데서 비롯된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소출을 내듯, 복을 지을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는 이치이다. 복의 근원이 3보와 부모, 이웃에 대한 보시에 있음을 당부한 가르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빈궁전을 요즘 말로 바꾼다면 자비실천, 사회봉사이다. 물질을 내어 봉사할 수도 있겠고, 공업(公業)의 업보를 조금이라도 덜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사회를 맑히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불교시민사회단체에 회원이나 자원봉사, 후원인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신한은행 : 189-13-03929-3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불교방송

남-북 불교학술 세미나 내년 4월 북경서 연다

불추위-조불련 평양서 합의서 교환

2000년 4월 북경에서 남북한 최초의 불교사상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 방북대표단(단장 명진)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11월 29일 평양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남한의 불교철학과 북한의 주체철학에 입각한 불교사상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 합의서에서 남북불교계 대표단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입각하여 △불교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해 상호 노력 △2000년 초파일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 △종단협의회 대표단의 평양방문실현 △불교추진위의 조선불교도연맹 지원 등의 4개항에 합의했다.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방북대표단장 명진스님은 "학술세미나와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의 북한방문 등에 조불련이 큰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며 "합의서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명진스님은 또 "남북대표단은 불교학술세미나 개최와 종단협 대표단의 조속한 방북을 논의하기 위해 1월말이나 2월초 북경에서 실무회담을 갖는다는 방침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초파일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에 맞춰 방북할 예정인 종단협방북단은 10여명 규모로 종단협에 가입한 여러 종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북대표단은 11월 25일 평양 광법사에서 남북 사부대중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북대표단을 통해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대선사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에는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불교계 연대가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희망하시는 스님의 의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기회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원로의원 일타스님 원적

5일 은해사서 다비식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은해사 조실인 동곡당 일타(東谷堂 日陀) 대선사 영결다비식이 5일 오전11시 은해사에서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일타스님은 11월 29일 오후9시39분 미국 하와이 와불산 사자봉 금강굴에서 승랍 58세, 세수 71세를 일기로 입적했으며, 일타스님의 법구는 2일 김포공항을 통해 은해사로 운구됐다.

〈관련기사 3면〉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조불련에 월동품 기증서 전달

종단협, 새회장에 정대스님 추대

종단협의회는 11월26일 중국 북경 해당화식당에서 조선불교도연맹 황병준 부위원장을 만나 조불련이 요청한 월동용품(방한복 4천벌, 신발 4천켤레) 기증서를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종단협 이사)을 단장으로 한 종단협 대표단은 월동용품 기증서를 전달하는 한편 △남북불교지도자 상호 초청 교환방문 추진 △남북통일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향후 남북불교교류는 종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창구는 종단협 사무처를 경유해서 각 종단에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불련측은 "통일을 위해 불교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이 전했다.

종단협-조불련 회동에 앞서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진각종 지현정사는 조불련 대표단과 별도로 만나 대북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태고종은 평화통일 기원 수륙영산대재의 남북공동 봉행과 북한사찰의 단청불사 지원을 제안했으나, 조불련은 거절했다.

한편 종단협은 9일 서울시내 하림각에서 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11월 30일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스님,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등 종단 대표 30여명은 판문점을 시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부대와 통일대교 경비부대에 라면 1백상자씩을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면담했다. 김대통령은 조계종의 사면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정대스님 "종단화합 최선노력" 김대통령 "사회안정 불교협력"

2일 청와대서 면담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일 김대중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갖고 "종단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대스님은 또 종단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하고 "더이상 불교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불교계도 사면을 실시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며 사면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불교문화재는 불교인은 물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대북햇볕정책과 사회의 안정에 불교계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정대스님과 김 대통령의 면담에는 중앙종회의장 법등, 호계원장 월서, 총무부장 원택스님, 조규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이 배석했으며, 오찬을 함께 하며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날의 면담과 관련, "조계종의 안정을 바라는 김 대통령의 관심의 표명"이라고 풀이했다.

정성운 기자

"평화문화 건설"

WCRP총회서 선언

분쟁의 화약고인 코소보, 인도네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세계 100여 국가의 종교지도자 340여명 등 종교인 1200여명이 지난 인류역사에 있어 종교로 인한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참회하고, 새로운 천년의 도래와 함께 희망과 사랑이 함께 하는 세계를 위해 헌신하자는 결의를 다진 최대 규모의 종교인회의가 열렸다.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열린 '종교와 평화에 관한 세계회의(WCRP)' 제7차 총회에서 종교인 대표들은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계는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명간의 긴요한 대화와 공동의 실천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서 7개의 실천항목을 선언했다. 〈2면으로 이어짐〉

제5회 신행수기 공모 12월 18일 마감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1999년 12월 18일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신문 관리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향문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향문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향문의 열쇠)
· 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향문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향문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향문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訃告

東谷堂 日陀 大宗師 世緣 已盡 佛紀 2543年 11月 29日(陰 10.22) 午後 9時 39分
於 미국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 入寂 慈以 訃告 - 佛紀 2543年 11月 29日 大韓佛敎 曹溪宗 元老會議 議長

-. 永訣日時 : 佛紀 2543年 12月 5日(陰 10月 28日) 午前 11時 -. 永訣場所 : 八公山 銀海寺 道場 -. 茶 毘 : 八公山 銀海寺 茶毘場

證 明: 혜암, 월하, 서옹
葬儀委員長: 탄성 副委員長: 종산, 도원
委 員: 관응, 고송, 탄성, 원담, 도견, 지종, 청하, 성수, 승산, 보성, 정천, 비룡, 응담, 운경, 도천, 석주, 법전, 녹원, 솔담, 범룡, 정영, 진제, 지유(무순)
護 喪: 도견 指導委員長: 정대 副委員長 : 법등, 일면, 정련, 무비
委 員: (중진) 능가 화엄 고산 천운 정관 무진장 도성 법정 월운 월주 초우 혜정 법안 덕명 법홍 벽파 봉주 철웅 고봉 월탄 인환 능혜 학능 현호 명선 설정 지성 월파 무공 철형 지선 현고 도후 혜총 천재 거해 (선원대표) 동춘 적명 무여 무문 인각 지환 (본사주지) 정락 법장 현해 혜광 진허 성덕 성타 성주 통광 성우 현문 법조 도엽 다정 종걸 현지 보선 중원 법현 부림 (종회의원) 종하 근일 지하 정휴 성관 종림 현각 세영 청화 마근 도완 정념 지명 진각 장곡 지운 법보 유광 혜정 장주 종상 능관 도각 수완 영담 정인 석호 정각 지광 원행 성오 화법 진만 종삼 법종 영조 몽산 월우 탄우 대원 진원 태공 경훈 동욱 지광 명진 현봉 지욱 현응 법안 학담 혜창 정우 여연 영배 광조 장윤 원우 지홍 원명 (비구니) 계호 견륜 상륜 광우 명성 묘엽 태경 쾌성 자민 수현 법성 육문 운달 일법 해주 본각 지형 일초 (무순) (신도대표)고은 김종서 김향란 백욱기 서돈각 손현수 양인석 윤철상 박완일 황수영 김태호 엄상호 송재건 주영운 한갑진 백창기 공종원 권지홍 김두원 김병조 김용립 김재영 남강수 민병천 경국환 박권흠 박봉식 박윤흔 송석구 신광식 유상종 이순규 한명숙 명호근 안동일 김노연 최동원 안종학 변영우 김동기 이중환 류진수 권세목 이상무 최종대 곽종형 김제현 강창식 이상현 김병관 명율식 신기악 윤소년 이상범 성낙승 정인악 진민자 황석동 권익현 박구일 박준규 주양자 추미애 박범진 조성준 정한용 이상현 김기재 서석재 김복동 박철언 김석원 이인제 함종한 박상규 박헌기 강선영 이용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임직원 일동 · 조계종 중앙신도회 일동 · 군종법사단 일동 · 종림 은해사 승가대학원 전국 포교사단 일동 · 제10교구 본말사 신도회장 일동 · 경북 도청 경불회(무순)
집행위원장 : 법타 부위원장 : 법의, 향적, 선혜, 돈명,
총 도 감 : 중성 도 감 : 원택, 원응, 도각, 여연, 법종, 현소, 설송, 법일, 불필, 육문
병 법 : 금담, 도성, 현일, 부용, 철호, 한우, 성안, 백홍암 선원 대중 일동
의 전 : 돈기, 돈무, 지상, 돈조, 재윤, 천은, 성덕, 현관, 덕진, 대오, 혜오, 반야, 기기암 대중 일동
지 빈 : 도선, 관후, 무관, 돈각, 향공, 천은, 불산, 선조, 성광, 법성, 일권, 도일 운부암 선원 대중 일동
재 무 : 돈오, 장적, 무이, 육문
홍 보 : 돈관, 태경, 박치민, 박원구, 영천 시청 미타회 대중 일동

섭 외 : 응각, 법장, 능허, 원타, 도각
접 수 : 각원, 덕진, 도일, 대지, 선재, 법등, 돈조, 동광, 청암, 종림 승가대학원 대중일동
법 주 : 금담, 현일, 정일
만 장 : 지상, 각림
경 호 : 법정, 동승, 무이, 혜봉, 성관, 현진
영 선 : 김병만, 이현식, 김창식, 김상화, 김규태, 김순자, 김추지, 전순태, 윤석환
다 비 장 : 김기남, 배문정, 최병철
매 표 소 : 김근식, 장완식
주차통제 : 영천경찰서, 경산 경찰서, 운불련 회원 일동
다 각 : 중안, 유곡, 본말사 비구니 스님 일동, 운문사 학인스님 일동
시 자 : 혜해, 혜관, 성민, 혜우
원 주 : 혜안, 일정, 혜철 별좌 : 승가대학 학인 일동
門中代表 : 화산 門徒代表 : 혜인 山中代表 : 성진
上 佐 : 혜인 성진 해규 혜국 자혜 자명 향적 도범 도응 돈수 돈명 선본 선혜 선견 선일 혜륜 돈각 돈기 혜웅 돈오 돈견 혜해 돈중 돈문 돈관 돈무 돈종 돈여 돈연 돈우 돈광 돈공 적광 적음 적조 적정 적상 적영 적인 돈성 돈일 돈조 혜진 혜등 혜우 혜휴 혜명 혜광 혜경 혜봉 혜안 혜철 혜정 혜능 혜월 혜공 혜도 혜일 혜심 혜찬 혜담 혜룡 혜상 혜종 철호 부용 한우 해우 성안 도봉 환봉 구봉 성혜 혜장 정우 인욱 향음 혜원 혜천 혜선 돈응 돈운 법성 혜민 혜산 돈유 돈현 혜각 정수 정원 정인 정호 도해 혜성 정행 해광 인호 혜관 정암 돈초 돈원 선종 (무순)
法 上 佐 : 법룡 법타 법의 설송 현소 법일 향공 중봉 무이 법산 도설(무순)
孫 上 佐 : 장선 선조 정혜 각문 선광 동광 정광 태경 성우 서광 묘광 만광 온광 도광 향광 신광 성묵 성조 원조 덕조 보급 진화 진성 성운 성담 성광 성범 성월 성해 성공 성전 금모 성본 선관 성원 성상 장명 장적 장일 장효 청암 선광 효광 원광 지광 범광 자광 태광 성광 무연 서광 정광 세등 심향 정수 성정 중원 불각 성륜 인담 성혜 성현 성천 성산 향광 화광 성문 성재 성로 성구 성효 성돈 인암 인묵 인산 성민 임정 수산 성안 각진 각문 각훈 성중 성종 구암 성각 나옹 정혜 불산 원민 우전 동원 세일 선오 초중 수암 성정 지공 법공 성오 정각 각진 혜담 종일 선일 덕일 서일 미륵 각오 성초 세광 (무순)
曾孫上佐 : 덕림, 대림, 선림, 정림, 세림, 도림, 대웅, 수민
在家佛子 : 이인제, 김현준, 김시남, 노성원, 배기수, 김창록, 우삼보

문의 및 연락처 : ☎ (0563)335-3318~9, 335-5220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은해사

東谷堂 日陀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 委員會